

# 한전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재무위기 극복 청신호

### 1-3분기 5조9천457억...지난해 동기비 192% 증가 요금 인상 매출 증가, 연료비·전력 구입비 감소 영향

한국전력이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200조원에 달하는 재무 위기 극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력은 13일 올해 1-3분기 누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조9천4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조4천534억원 영업손실)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요금 인상 효과로 매출이 4조1천833억원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연료비, 전력 구입비 감소 등으로 8조2천158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해 영업이익을 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로 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시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43조원의 적자를 쌓은 상태였다.

원가 인상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작년 3차례에 걸쳐 올렸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4

18.4TWh(테라와트시)로 전년 동기보다 0.8% 증가했다.

판매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6.15원으로 6.9% 커짐에 따라 판매 수익도 66조7천279억원으로 8.0% 늘어났다.

한전은 최근 중동 분쟁 격화와 리우 전쟁 지속, 고환율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시행된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의 효과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지난달 24일부터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평균 9.7% 올렸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 흐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로 쌓인 40조원대 누적적자의 단계적 해소를 바라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3년 9월 말(2023.9.30 기준)보다 4천400억원가량 늘었다. 대규모 부채로 한전은 작년 한 해만 4조4천500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하루 122억원 수준이다.

분기 평균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이자

비용 부담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순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3분기에도 한전은 약 3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순이익은 1조9천억원을 밀었다.

한전은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 노력을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전기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더불어 전력 구입비 절감 등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 중진공 호남연수원-지역기업 '희망나누기 기부행사' 성료

### 전남 23개 아동양육시설에 자재 생상품·기부금 등 전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하 호남연수원)은 13일 "전날 ESG 경영 실천과 나눔 가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지역기업들과 함께 희망나누기 기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식에는 이용도(유)은진하이테크 대표, 권처근 비응도등대가 이사장 등 기업인과 김미자(사)전남아동복지협회 회장, 조우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이병필 전남지역본부장, 김현진 전남동부지부장, 조수정 호남연수원장 등이 함께했다.

호남연수원 ESG 패밀리는 중진공 패밀리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참여기업,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졸업기업 등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호남연수원 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공헌활동 실천 모임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지속 전개해왔다.

올해도 중소기업 자재 생상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 지난 12일 개최한 희망나누기 기부행사에서 참여자들이 단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 제공>

생활 필수품, 미사용 물품, 성품 등을 수집해 전남 지역 23개 아동양육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전남아동복지협회에 기부했다.

총 13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의 기부규모는 3천300만원 상당으로 지난해 기부금액(2천700만원)보다 22%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인만큼 기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온정은 오히려 늘었다.

기부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비응도등대가(김삼성 대표), ㈜쿠기아(김명신 대표), ㈜우늘도(강성룡 대표), ㈜굿마인드(송창근 대표), ㈜청산바다(위지연 대표), (유)은진하이테크(이용도

대표), ㈜파도타다(고준성 대표), ㈜대한식품(한윤경 대표), 요담엔(장준혁 대표), 선우테크(박양주 대표), ㈜삼원에스티에스(원충국 대표), ㈜용호기계(정미정 사장), ㈜지우스텐레이저(김인국 대표) 등이며, 호남연수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친환경제품 등을 구매해 전달했다. /정은솔 기자

## 맥쿼리자산운용, '민자사업 발전' 기재부장관상

맥쿼리자산운용주식회사는 13일 "전날 기획재정부 주재로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상장펀드인 맥쿼리인프라를 지난 22년간 운용하면서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민자사업에 선도하고 일반 국민들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주요 민자사업에 투자했으며, 2006년 국내 인프라 펀드로는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국민 누구나 민자사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 이용자가 펀드 투자자로 참여해 해

당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했다. 맥쿼리인프라의 시가총액은 약 5조7천억원, 투자자 수는 약 22만 명이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인프라 지분율의 88.2%는 국내 투자자이며, 국내 투자자 중 45.9%는 연기금, 보험사, 공채회,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이고, 나머지 54.1%는 개인투자자다.

서범석 맥쿼리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2년간 맥쿼리자산운용은 맥쿼리인프라를 통해 한국 사회 인프라 확충 및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민자 투자 기회를 확대해왔다. 또한 민자사업법인의 투명한 지배구조 수립,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재무관리, 최상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유지, 지역사회 공헌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상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민자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원·달러 환율 1천400원 돌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뚜렷해진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3일 1천410원을 돌파, 연고점을 재경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우·변소 대충센터에서 직원들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국세청, 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능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

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

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b>시내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국 222-8171</li> <li>· 산수지국 224-4188</li> <li>· 학운지국 673-6836</li> <li>· 화정지국 372-9140</li> <li>· 금호지국 376-7153</li> <li>· 풍암지국 603-0311</li> <li>· 노대지국 674-3581</li> </ul>	<b>지방 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지국 453-2554</li> <li>· 광천지국 374-2120</li> <li>· 진월지국 676-2726</li> <li>· 봉선지국 673-6836</li> <li>· 백운지국 673-0123</li> <li>· 두암지국 266-1920</li> <li>· 농성지국 362-4102</li> <li>· 나주지사 061)335-0005</li> <li>· 광양지사 061)793-6800</li> <li>· 구례지사 061)782-4696</li> <li>· 담양지사 061)383-5566</li> <li>· 곡성지사 061)362-5746</li> <li>· 여수지사 061)851-6433</li> <li>· 보성지사 061)852-6644</li> <li>· 화순지사 061)373-7795</li> <li>· 장흥지사 061)863-6800</li> <li>· 강진지사 061)432-8899</li> <li>· 해남지사 061)535-5849</li> <li>· 영암지사 061)473-7151</li> <li>· 오치지국 261-9461</li> <li>· 문흥지국 261-9462</li> <li>· 영광지국 573-3200</li> <li>· 첨단지국 971-7374</li> <li>· 치명지국 371-9584</li> <li>· 수원지국 955-0451</li> <li>· 광신지사 944-0993</li> <li>· 무안지사 061)453-3645</li> <li>· 함평지사 061)322-0882</li> <li>· 영광지사 061)353-5133</li> <li>· 장성지사 061)394-3636</li> <li>· 완도지사 061)555-0134</li> <li>· 진도지사 061)542-4330</li> </ul>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